

만남

2023년 3월
통권 21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2023년 사순 시기 교황 담화	-----	3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도 나갈 거야!!	-----	7
소공동체 모임 자료	-----	9
‘십자가의 길’ 궁금증 풀이	-----	12
성경 속의 사람들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9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0
공동체 소식	-----	21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2
월 중 행사표	-----	23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4
미사안내	-----	25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학대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교회 구성원들에게 받은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3년 사순 시기 담화

시노달리타스 여정인 사순 시기의 수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오와 마르코와 루카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드러낸 몰이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직전에는 스승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실제 대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예고를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이 일이 있고 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마태 17,1)라고 복음사가들은 전합니다.

주님 변모에 관한 복음이 해마다 사순 제2주일에 선포됩니다. 이 전례 시기 동안에 주님께서서는 외딴곳으로 우리를 함께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소임들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 것을 요구하며 흔히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게 할지라도, 사순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자기 수련으로서 수덕(ascesis)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십자가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은총으로 복돋워지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이는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임무입니다. 우리가 스승님을 깊이 알고,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성취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범속과 허영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외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곧, 등산을 하는 것처럼 노력과 희생과 집중을 요구하는 오름의 여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교회인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에도 중요합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과 시노달리타스 체험 사이의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타볼 산 위로 ‘따로 물러가심’에 이 유일무이한 일의 증인이 되도록 뽑으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함께 나누는 체험인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 은총의 체험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안에 순례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동무로 주신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면서 전례 주년과 그 가운데 있는 사순 시기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타볼 산에 올라갔듯이, 한 분이신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같은 길을 함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사순 여정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교회는 전례의 여정을 통해서도 시노드의 여정을 통해서도 구세주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더욱더 깊고 충만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2)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여정의 목적인 ‘정상’입니다. 끝까지 올라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섰을 때, 세 명의 제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신성한 아름다움은 제자들이 타볼 산을 오르는 데에 들였던 온갖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힘겨운 등산 중이라도 우리는 그 길만을 올곧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 웅장함으로 보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시노드 과정 또한 종종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틀림없이 멋지고도 놀라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결실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타볼 산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은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율법과 예언자를 각각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마태 17,3 참조). 그리스도의 새로움은 동시에 옛 계약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새로움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하시는 역사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그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노달리타스 여정 또한 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새로움에 열려 있습니다. 전통은 현실 안주와 즉흥적 시도라는 상반된 유혹을 피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의 여정과 시노드의 여정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변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여정 안에서 이 변모는, 예수님의 변모 안에서 모범을 찾고 그분의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안에 이러한 변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두 가지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제자들이 타볼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관상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안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귀 기울이는 만큼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교회가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막지 맙시다. 미사에 늘 참석할 수 없다면, 매일 미사의 성경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봉독하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사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 과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는 것은 종종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 경청은 시노드 여정의 몇몇 단계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양식과 방법에 언제나 필수 요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마태 17,6-8). 이번 사순 시기를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빛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 줍니다. 그 빛을 향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따르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를 체험하여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강력한 친교 체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지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체험한 은총으로 우리가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이번 사순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켜 주시어, 예수님의 신성한 광채를 경험하며 신앙 안에서 굳건해진 우리가 당신 백성의 영광이요 민족들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기를 빕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프란치스코



♥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도 나갈 거야!!

(윤종두 요한 신부님/ 마산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인종차별 人種差別 또는 인종주의 人種主義는 인종 집단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나 우열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뜻한다. 흔히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서구세계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믿을 수 있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백인과 흑인의 차이를 둔 미국의 ‘짐크로우’법은 196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법은 1995년에서야 비로소 소멸하였다. 인종주의는 일본에서도 신봉되었는데, 1903년 오사카 내국 권업박람회 때 조선인 등 7개 민족을 전시했고, 1907년 도쿄 권업박람회에서도 조선인 두 명을 전시하고, 2차 대전 당시 발행된 ‘야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하는 세계정책의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인을 다른 동양 인종보다 우월한 인종이라고 드러내고 있다. 과학적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런 차별은 2차 대전 이후 과학적 연구 절차를 거쳐 기존의 인종주의적 주장이 모두 부정되었고, 이 단어의 의미는 과학적으로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다. 즉, 과학적으로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정서적으로도 해소된 것일까?
10여 년 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어느 수업에서의 일이다. 신학생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로 이루어진 한 수업 시간에 ‘흑인’을 보면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나눔을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실제로 흑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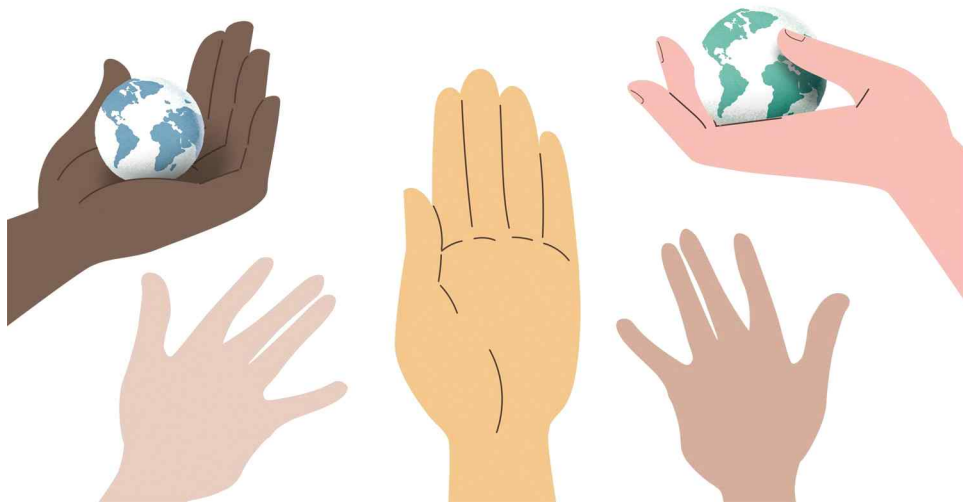
“더럽다!” “무섭다!”를 넘어서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검다’는 단어 하나에 모두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몸이 하는 반응은 여전히 반대편에 서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스스로 놀라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가 본명을 사용할 때 자녀들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한 1차적 방법이라 하니, 우리

사회의 정서적 차별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인데,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정서적 인종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주소에 마음이 아플 따름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민족에 대한 혐오가 각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대두되었지 않았던가?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이주민’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역사적 사실이든, 왜곡된 사실이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지니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시선과는 별개로, 더 나은 삶을 향해 약속된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힘겹지만 고향을 떠나 편견과 차별을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무거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마태 17,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7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을 위해 최근에 한 것이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는 언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느낍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산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 기념을 하려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말을 더 듣도록 이끕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세례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종으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드님, 마음에 드는 아드님으로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샤바즈 바티는 파키스탄 최초의 소수민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그는 유일한 그리스도교인 장관으로서, 신성모독법 폐지 등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2일, 그는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시간은 몰랐을 지라도,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인구 95%가 이슬람교 신자인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살해당할 줄 알았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택한 사람입니다. 샤바즈 바티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사순 시기 특집] '십자가의 길' 궁금증 풀이

■ 십자가의 길 기원

신약성경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행로와 그 중에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무엇보다 복음서 기록들이 가장 중요한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 사후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자들은 2세기경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남아 있는 장소들을 거룩한 장소들로 보존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발견물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

4세기 말 순례자 에테리아(Etheria)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해골산 정상에는 부활(Anastasis), 십자가(Crux), 순교(Martyrium)라고 이름 붙여진 장소가 있었고 각 장소마다 소경당이나 대성당이 세워져 있었다. 주님 부활 대축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부활'에서 '순교' 지점까지 신자들이 행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행렬이 현대 신자들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와 같은 의미와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신심행위로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중세 이후부터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1090~1153), 아시시의 프란치스코(1181~1226), 보나벤투라(1217?~1274) 등 성인들이 십자가의 길이 신심행위로 자리 잡는 토양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11~14세기에 전개된 '십자군 운동'도 십자가의 길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십자군 운동은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예수님의 여정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십자군 운동 기간 중이던 12세기부터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다시 시작됐고, 1233년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에게 예수살렘 성지 수호와 상주 임무가 부여돼 예수 수난에 대한 신심이 촉진, 전파됐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십자군과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로를 보여 주는 모형들을 건립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 십자가의 길 14처

십자가의 길 기도는 흔히 14개의 처(處, Station)로 돼 있다고 해서 '14처 기도'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성당이나 성지 십자가의 길도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에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까지로 이뤄져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69항에도 “총독 관저에서 골고타와 무덤에 이르는 14처는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14처가 언급돼 있다.

십자가의 길이 14처로 굳어진 것은 클레멘스 12세 교황(재위 1730~1740)이 1731년 4월 3일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의 올바른 거행을 권고함」이라는 교령을 공포하면서부터다. 이 교령 공포로 당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파돼 있던 십자가의 길을 14처로 한정하고 각 처마다 고유한 수난 사건을 고정시켰다.

이전까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5처, 7처, 11처, 12처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가 18세기 들어 14처 십자가의 길이 가장 널리 전파됐고 이것을 교황청이 승인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꼭 14처인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일부 신학자와 전례학자의 의견에 따라 부활에 대한 묵상을 담은 15처가 더해진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도 한다. 1975년에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해 부활로 완결되는 16처 십자가의 길을 승인하기도 했다.

■ 십자가의 길 한국교회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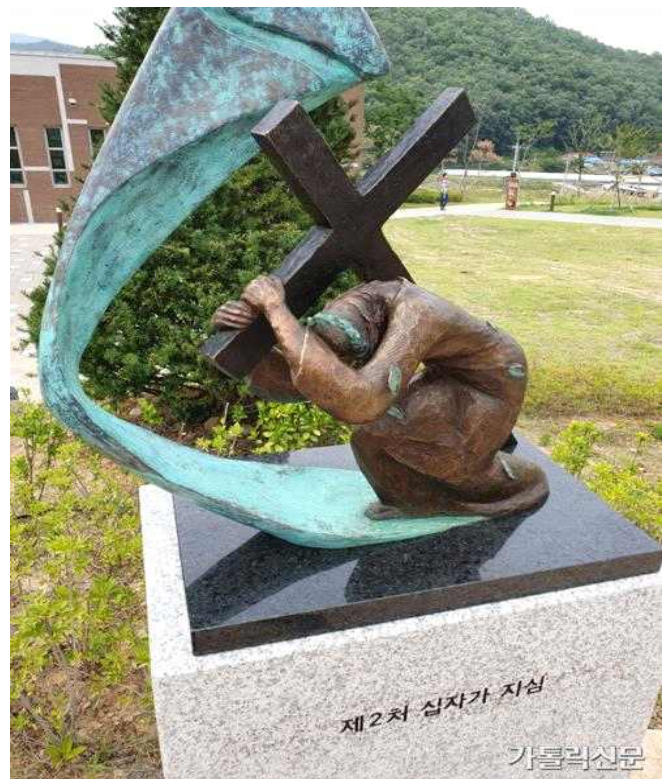
한국교회 신자들도 박해시기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지만 정확한 시기까지 알기는 어렵다. 1862년 목판으로 인쇄돼 1969년 「가톨릭 기도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교회 공식기도서로 사용된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에는 주일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 대송(代誦)으로 '주일경'과 '축일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면서 기도서가 없거나 글을 모를 경우 '성로선공'(聖路善功)을 바치라고 규정돼 있다. '성로선공'은 십자가의 길을 뜻하던 예전 용어다. 박해시기에 이미 신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가 널리 행해졌고 이후에도 중요한 신심행위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십자가의 길 언제, 어디서 바치나

십자가의 길 기도는 신자들이 주로 사순 시기 중 금요일에 성당에 모여 바치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 기도서」에는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 시기 금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마땅히 바쳐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교회법에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시기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가톨릭 기도서」에 표현된 ‘마땅히 바쳐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겪었던 수난과 고통에 신자들이 진실한 존경과 회개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일반적으로 14처 형상이 설치된 성당이나 성지에서 바친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바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다. 성당이 너무 멀어 갈 수 없는 때, 항해 중이거나 아프거나 또는 감옥 등에 있을 때는 축복받은 십자가를 모시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수도 있다.



<경북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 성경 속의 사람들 - 카인과 아벨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하느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인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창세 4,1-16), 곧 형제 살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형제를 죽이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주제는 고대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의 하나입니다. 고대 로마를 건설했다는 로물루스도 자신의 형제인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권력을 위한 싸움 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의 문제일까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이야기의 중심인물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이끄는 인물은 카인과 하느님입니다. 아벨(헛됨, 미풍, 가느다란 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조연일 뿐입니다. 카인(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야말로 하느님과 대화하고 부딪히고 행동하는 중심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카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카인은 땅의 소출을, 아벨은 양 떼 가운데서 만배들과 굳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벨은 좋은 것을 바치고 카인은 나쁜 것을 바쳤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바친 제물의 질질에 대해 어떤 비교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이시고(‘굽어보시고’) 카인 쪽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물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하느님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의 잘못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카인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자신의 의지와 뜻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주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하느님,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카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창세 4,6-7).

‘옳게 행동하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자가 되라는 충고입니다. 이는 또한 카인을 지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창세 4,8). 간단하게 묘사되었지만,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오직 둘만 있는 곳, 그래서 형제로서 서로 더 의지해야 할 그 들판 한가운데서 살인의 폭력이 행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창세 4,9).

이 질문은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숨은 아담을 찾을 때 하신 말씀,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이를 찾으시는 말씀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며, 또한 회개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곧 당신께로 나아오라는 초대 말씀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뉘우치지 않던 아담처럼 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ㄴ).

거짓이자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제 에덴의 남자와 여자가 걸었던 그 길을 카인도 걷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출발점인 땅과의 관계가 끊어졌듯이, ‘땅을 부치던 농부’(창세 4,3) 카인도 ‘땅에서 쫓겨나’(창세 4,11)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창세 4,12.14)가 됩니다. 더 나아가 카인은 이제 하느님 앞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창세 4,16)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끝까지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죽이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그를 찾아와 대화하시며,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에 카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을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창세 4,14).

하느님은 비록 카인을 땅에서 쫓아내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표’(창세 4,15)까지 찍어 주십니다. 카인을 향한 하느님의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표’를 받은 카인에게도 자녀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뒤이어 ‘카인의 자손’(창세 4,17-22)은 하느님께서 카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심을 보여 주는 단서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말하듯이 모든 살인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단죄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모욕조차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1-22).

살인, 상해, 사형 제도만이 아니라 형제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과 행동은 생명의 원천에서 스스로 자신을 떼어 놓는 행위입니다.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도 하느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창세 4,7).

카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는 길입니다.



얀 반 에이크의 겐트 제대화: 아벨의 죽음 ,
Jan van Eyck, The Ghent Altarpiece: The Killing of Abel,
1425-29, Oil on wood, width 37cm , Cathedral of St Bavo, Ghent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안나	김지영	19일	요셉	김민옥 이현묵
3일	가밀라	허(이)명자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엄서울(H)	19일	요셉	홍준화(B) 이재홍(O)
----	------	--------	-----	----	------------------

❖ 3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72	215	163	119
12일	115	210	170	124
19일	117	340	499	490
26일	489	215	172	125

❖ 3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복사	커피봉사
5일	이경규(안스가) 유곡지(아그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황혜인 (율리아)	박노아 (노아)	4구역
12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최승진 (바오로)		요셉 마리아
19일 (청년)	학생부 청년회	이상윤(카스토) 김시몬(시몬)	신유경 (율리아)		1구역
26일	김매자(베로니카) 최정자(벨라멧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신유경 (율리아)		2구역

♥ 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2월 23일 기준)

윤석순, 신유경, 이종하, 강신행, 김점선, 영희 Eggerstedt

✿ 본당 계좌 입금(2월 23일 기준)

이경규, 송문규, 정정숙, 옥수 Renitzsch

✿ 교구 계좌 입금(2월 23일 기준)

백정선, 김원자, 김치수, 허길조, 허선애, 이명원, 최화영, 이공종, 허두옥, 김동수, 이정은, 이경란, 현영해, 이정수,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3일 월말 경상비 잔액은 19,623.84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사순 시기 동안 주일 미사 전 14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레지오, 연령회, 요셉마리아회, 사목회에서 교대로 주례하겠습니다.
2. 사순 시기 동안 전 공동체에서 매일 복음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며, 하느님 자비와 예수님 수난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사순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 시기 동안 매일 복음쓰기를 완료한 교우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3. 3월 5일(일)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을 위한 모금이 있겠습니다.
4. 3월 12일(일) 에센과 교환사목이 있습니다. 에센에서 구경국(알로이시오) 신부님께서 방문하십니다.
5. 3월 19일은 함부르크 한인본당 초대 주임으로 역임하셨던 故김차규(필립보) 신부님의 3주기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위령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6. 3월 25일 노르웨이 공동체 방문으로 23일 목요일 미사는 없고, 26일 주일미사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7. 3월 26일 주일미사에 Misereor 2차 헌금이 있습니다.
8. 3월 연령회 월례회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 회장단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봉사에 나서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 : 김명수(마태오), 총무 : 김희진(요아킴),
전례 : 이해봄(시메온), 김승호(스테파노)
2. 3월 25일 노르웨이 오슬로 공동체 방문과 미사가 있습니다. 오슬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한말조(마리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직장부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이태헌(루카)	
학생부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3 월 행 사 표

(성 요 셉 성 월)

일	요일	축 일	단 체 행 사	비 고
1	수		삼일절	故김덕산(요셉) 신부 5주기
2	목			
3	금			故석종관(바오로) 신부 49주기 금육
4	토		브레멘 미사	강영구, 최진우 신부
5	일	사순 제2주일	구역 봉사자 회의	故지대건(야고보) 신부 33주기
6	월			故정수길(요셉) 신부 45주기
7	화			故서원열(라파엘) 신부 24주기
8	수			
9	목			
10	금			금육
11	토		오스나브뤼크 미사	
12	일	사순 제3주일	교환 사목(에센) 청년회(직장) 기도 모임	
13	월			故김용백(요한) 신부 7주기
14	화		꾸리아	
15	수			
16	목			
17	금			금육
18	토		하노버 미사	박해준 신부
19	일	사순 제4주일	요셉,마리아회 모임 청년회(학생) 기도 모임	故김차규(필립보) 신부 3주기 비고란 참조
20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21	화			
22	수			
23	목		미사 없음	
24	금			금육
25	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노르웨이 오슬로 미사	김종훈 신부
26	일	사순 제5주일	주일미사 시간 조정 / 15시 30분 사목회	
27	월			
28	화			
29	수		연령회 월례회	
30	목			
31	금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일 (1866년)		금육

❶ 3월 19일 : 이한기, 권창현, 이성렬, 객준석, 황인균, 신호열, 김형렬, 변종원, 정병진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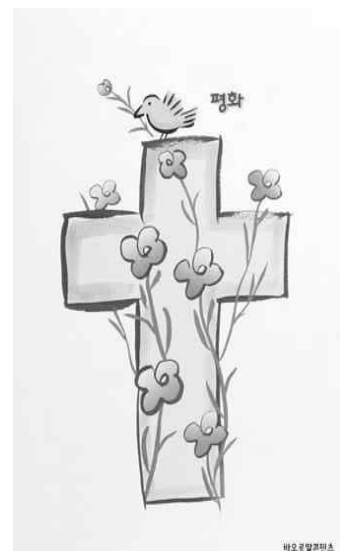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